1939 2019
80th Anniversary

한양 개교 80주년 “8행시로 한양을 말하다”

2019년. 한양대학교 개교 80주년을 맞아,
80년 역사의 무한한 성장을 상징하는 단어의 조합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8행시 짓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선정된 우수작을 발표하여, 80주년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한양인의 멋진 필력과 감성을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양대학교

1939 2019
80th Anniversary

한양팔공무한성장

수상자 명단 (총33편)

최우수작(8선)

「장원」 심규환 (학생)

권용우 (학생)

김선아 (동문)

박찬운 (교원)

오채원 (학생)

장경선 (직원)

전준구 (학생)

한창훈 (학생)

우수작(5선)

김세미 (동문)

김호석 (동문)

설형우 (학생)

손정빈 (직원)

정송주 (학생)

가작 (20선)

고민혁 (학생)

권준석 (학생)

권형석 (학생)

김선화 (직원)

김연산 (직원)

김용주 (교원)

남기웅 (학생)

박태준 (직원)

사카모토 쿠니아키(동문)

설형우 (학생)

이경희 (직원)

이다영 (동문)

이성규 (학생)

이유정 (학생)

이준수 (직원)

장은영 (직원)

정찬주 (학생)

최기현 (학생)

표지원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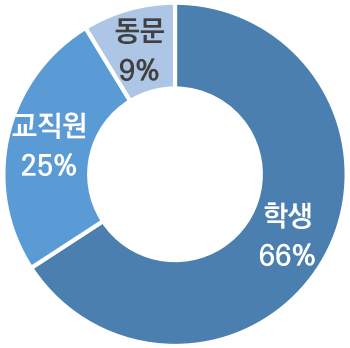
한지연 (직원)

* 장원은 최우수작 8선 중 온라인 투표(페이스북)를 통해 최다 득표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수상자는 성명 가나다 순이며 평가와 관계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소속 구분 이외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여 현황 및 경과

총 응모작 : 275편



- 학생 181편
- 교직원 70편
- 동문 24편

- 응모기간 : 2019년 5월 8일 ~ 12일
- 응모방법 : 온라인 지원
- 장원 선발 온라인 투표 : 2019년 5월 14일 ~ 21일
- 최우수작 8선 전시 : 개교기념식장 입구 및 박물관 특별전시회

「장원」

심규환(학생)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양초처럼 활활 타오르던 열정도 식어가고
팔팔했던 청춘도 스쳐 지나감을 느끼며
공허함이 불현듯 찾아올 때도 있고
무력함에 나 자신을 탓할 때도 있겠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부족할 정도로 찬란한
장차 펼쳐질 너의 미래.

「최우수작」

권용우(학생)

한양가족 합심하여 이루어낸 팔십주년
양캠퍼스 하나되어 일심으로 경축하세
팔십년의 춘추속에 조국성장 동력되어
공학보국 이념으로 일류대학 이루었네
무색하온 행당바위 개나리가 만개하니
한양동산 밝은광휘 방방곡곡 퍼지도다
성실하사 한양인들 애지실천 이념이어
장강대해 방방곡곡 애국한양 기(旗)높이리

「최우수작」

김선아(동문)

한때 꿈이었던 곳에 꿈같은 시간을 남겨두고
양팔 가득 꽃다발을 안고 떠나온 곳
팔팔계단을 올라갈 때면 숨이 찼지만
공학관에서 까치골 가는 길, 햇살은 눈 부셨고
무더위와 강추위, 피부에 스며들었던 모든 온도가
한양에서의 그리운 추억으로 남았다
성장이란 그리움의 무게를 쌓아가는 일
장난치며 오르던 계단마다 쌓인 지식과 추억의 무게, 어언 80년

「최우수작」

박찬운(교원)

한 많은 세월 보내온 우리 민족
양지 바른 한강변에 대학 한양을 세워
팔십여 성상 대한의 간성을 키웠으니
공들여 가꾼 한양의 인재들 오대양 육대주 어디든지
무한질주 자랑스럽고 자랑스럽도다
한국인의 긍지 가슴에 안고
성실과 사랑의 자세로 세계를 품은 그대들
장하도다 대한의 아들딸 한양인이여!

「최우수작」

오채원(학생)

한양대 붙었어, 엄마
양 어깨 딱 힘주고 다닐게
팔자 늘어지게 놀아도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무리해서 술 마시지 않을게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성공하기보다 성장하려고 노력할게
장녀가 아니라, 장한 딸이 될게

「최우수작」

장경선(직원)

한 사람.
양 손에 사랑과 정의를 지닌 한 사람.
팔에는 불멸의 진리를 아로새기고
공든 탑이 무너지랴 불굴의 의지로
무한한 신세계를 향해 날아오른다
한 사람.
성공보다는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은
장엄한 한양의 역사 속 영웅입니다

「최우수작」

전준구(학생)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청춘은 없다.
양쪽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팔십년 동안 한양대를 오르내리며
공부하던 학생들도 그랬다.
무섭고 실패가 두려웠던 시절이지만
한 번씩 돌이켜 생각해보니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은
장했던 그때의 내 청춘이었다.

「최우수작」

한창훈(학생)

한양대학(漢陽大學): 한양대학교는

양공고심(良工古心): 장인의 자세로 가슴 속에 고심을 품고 살며

팔면육비(八面六臂):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수완을 발휘하는 동문을 여럿 배출하였소.

공자천주(孔子穿珠): 또, 배움에 부끄러움을 모르기에,

무궁무진(無窮無盡): 한계점을 설정하지 않고 무한히 달려나가며,

한마지재(汗馬之材) : 장군 같은 동문을 무수히 배출하기도 했소.

성심성의(誠心誠意) : 참되고 성실한 마음과 뜻을 끝까지 함께 모아

장풍파랑(長風波浪) : 훗날 더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오.

「우수작」

김세미 (동문)

한양인이라면을 끓이는 방법

양파처럼 까도까도 나오는 매력 한 스푼

팔팔한 열정 한 스푼

공짜보다는 봉사하는 마음 한 스푼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사랑 한 스푼

한솥 끓이고 나면 맛있는 한양인이라면

성공~!!!

장차 나, 너, 우리가 꿈꿀 미래의 한양인을 위해 맛있는 재료를 준비하자~!!!

「우수작」

김호석 (동문)

한국 경제 부흥성장 얼마나 되었다고
양극화 심하다고 아우성 난리일세
팔십년 외길인생 국가세운 사자떼야
공허한 탄식소리들 잡아먹고 오너라
무릉도원 온세상을 바라진 않더라도
한많은 세상속에 빛줄기가 된다면은
성공신화 안주말고 사자야성 회복하여
장대한 팔백년향해 사자후를 발하라

「우수작」

설형우 (학생)

한 순간, 그대의 그 순간 순간이

양분이 되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지요.

팔십년동안 그대를 스쳐간 많은 이들이

공공연히 그대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잖아요.

무지하던 우리의 철없음이

한없이 끝없을 것만 같던 불안한 시절들이

성숙함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준건 그대였음을...

장난스럽지만 이렇게라도 말씀 드릴게요. 고마워요

「우수작」

손정빈 (직원)

한적한 언덕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팔을 뻗어
공연히 하늘을 만져본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한없이 고민한 80년
성성한 백발은 간데없이
장성한 청년들이 언덕을 내려간다

「우수작」

정송주 (학생)

한심하다 말해도 좋으니
양심을 속이지 않으며
팔자(八字)가 피지 않아도 좋으니
공부해서 지식이 가득하며
무모(無謀)해도 좋으니
한(恨)없는 삶을 살며
성공하지 못해도 좋으니
장미 한 송이 바라볼 여유를 가진 한양인

「가작」

고민혁 (학생)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양처럼 순종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팔색조 같은 매력을 내뿜는 리더가 될 것인가
공부하여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한양대 학우들이여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장래의 대한을 밝힐 인재, 그대들이다.

「가작」

권준석 (학생)

한양대에서 여자친구을 사귀었다
양 볼이 발그레지는 건 어쩔수가 없나보다
팔을 벌려 그녀를 안아보았다
공기만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지?'
'한양대에서 연애라니, 용납할 수 없다!'
성난 얼굴을 하며 나를 지켜보던 그,
장학금이었다.

「가작」

권형석 (학생)

한 세기를 앞두고 있는 한양을 보라.
양재들을 끊임없이 배출할 수 있는 이유는
팔지 않는 한양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렷다.
공들여 함께 쌓아온 팔십층의 상아탑을 보라.
무너질 기색은커녕 위로 뻗어가는 모습은
한국을 대표하는 성장동력의 모습 그 자체로다.
성공에 점취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장성할 것을 목표하는 참다운 교육기관, 한양대학교이다.

「가작」

김선화 (직원)

한양대학교 정문에서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지나면
양지바른 곳에 가파른
팔팔계단이 나타나고 숨이차게 계단을 올라가니
공과대학 건물 사거리에 시계탑이 랜드마크로 서있고
무명씨의 비석이 있는 좁은 숲길을 지나
한 걸음 돌아가니 저 멀리 HIT건물이 드넓은 광야처럼 펼쳐져 보이고 그 길을
성큼성큼 걸어서
장미, 개나리, 진달래꽃 활짝 핀 돌담길을 따라 내려오니 정문이 보이네요.
구경 참 잘했네요!

「가작」

김연산 (직원)

한결같은 기술보국
양어깨에 짊어지고
팔십년을 달려온너
공부연구 봉사하여
무한사랑 실천하고
한양다움 지켜가자
성장엔진 사랑엔진
장하구나 실용한양

「가작」

김용주 (교원)

한 사람의 교육을 향한 열정
양민들이 좋은 기술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 청년. 김연준이 이 민족의 횃대로 나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는 사랑의 실천을 표방하였다
무지한 백성들은 드디어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고
한양인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근본이 되었다
성장동력이 무한한 한양인이여!!
장엄한 승전가를 전세계에 울릴지어다!!

「가작」

남기웅 (학생)

한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사이의 고민이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고민의 답을 찾고자 학교를 찾아갔다.

공학인재육성과 함께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띌 수 밖에 없었다.

무수히 많은 대학들 속에서 거침없이 성장한 이유가 있던 것이다.

한양대학교의 80년은 늘 이 길위에 있었다.

성공을 강요하는 사회 속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기위한 80년

장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결실을 만들었다.

「가작」

박태준 (직원)

한 마리의 아기 사자가
양손에 번쩍 들려져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때
팔미터 절벽 아래 동물들은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했다
공학기술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무대의 중심엔 처음부터 한양이 있어왔다
한 마리의 아기사자는 라이언킹이 되었고
성공의 발자취를 찍으며
장대한 미래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중이다

「가작」

사카모토 쿠니아키 (동문)

한양대학교에서 동기들과
양꼬치 먹던 때가 그립습니다
팔팔했던 청춘시절
공차러도 나가고
무한정 밤새 술도 마시고
한적한곳에 앉아 책도 일곤 했었지요
성인의 시작을 함께한 한양대
장차 큰 인물이되어 보답하겠습니다

「가작」

설형우 (학생)

한 줌 손에 잡힐 듯한 청춘을 안고 시작하는 이들을
양 팔 벌려 맞이 해주던 한양대학교가
팔십번째 청춘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공허하게 흘러갈 뻔한 청춘이란 시간들도,
무심코 떠나보낼 가능성과 열정들도,
한양대학교는 놓치지 않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성난 사자가 포효하듯,
　이제 한양의 사자들도 세상을 향해 그들의 포효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장한 모습에 기뻐 안아줄 한양대를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말이죠.

「가작」

이경희 (직원)

한계여
양손 가득 결의를 품고
팔뚝에 힘을 실어
공연히 너를 맞이하리라
무한한 그 끝이 보일 때
한계여
성벽이여 그 단단함을 깨고
장차 너를 뛰어 넘으리라

「가작」

이다영 (동문)

한강 청산 맑은 기운 오롯이 받아
양지 바른 언덕에 교단 세웠네
팔십 년간 이어져온 사랑의 실천
공부하고 베푸는 이 길러내었네
무한히 비상하는 한양의 위상
한 뜻으로 후배들이 밀어올리니
성공하신 선배들이 끌어주는데
장차 우리 영원토록 함께 달리세

「가작」

이성규 (학생)

한양의 꿈을 실천한다
양 손을 내밀어 바닥에 누운자의 손을 맞잡는다
팔로 감싸 안아 그를 일으킨다
공공이 그에게 해주지 못한 작은 일을
무한히 작으며 무한히 큰 사랑으로
한양의 꿈을 꾼다
성취와 성공 그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실천이
장려되는 사회를 꿈꾼다

「가작」

이유정 (학생)

한양아, 많이 힘들지
양 어깨가 축 쳐졌네
팔 벌려 안아줄게
공부하랴 취준하랴
무거운 짐들이 널 힘들게해도
한양아, 나는 언제나 네 편
성공하고 말거야. 나는 너를 믿어.
장차 세계를 빛낼 한양인, 그게 바로 너이기에

「가작」

이준수 (직원)

한양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양심껏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1939년에 개교해서,
팔십년 동안 묵묵히 우리나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공대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예체능 등 학문의 융합발전을 추구하는 혁신대학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 바로
한양대학교입니다.
성동구와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무한대로 열어 드립니다. 한양대학교로 오세요

「가작」

장은영 (직원)

한양의 가족은 셋으로 나뉩니다.

양어깨에 한양의 미래를 짊어진 3만 명의 재학생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5천 명의 교직원

공을 닦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된 33만 명의 동문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80년간 꾸준히 증명해 온 한양이기에

한양, 그 명성이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한양'이라는 푸른 정원을 가꿔

장차 국내 제일의 대학으로 피어날 한양의 행보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작」

정찬주 (학생)

한양대의 교정안에는
양손을 쭉 뻗어도 안을 수 없는 큰 꿈이 담겨있고
팔십년동안 꺼지지 않은 교수님들의 열정속엔
공들여 쌓은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무수히 많은 별들 사이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꿈이 섞여있습니다.
성동구에 우뚝 자리잡은 자랑스런 한양대학교
장대한 역사를 계속 써나가길 응원합니다!

「가작」

최기현 (학생)

한 번에 이루려고 욕심내지 말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자.
팔십 인생 중 지금은 청춘이니,
공부에만 목숨걸지 말자.
무덤으로 갈 즈음에 생을 돌아봤을 때
한양대학교에 머물렀던 지금 시기가
성공이었다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자.
장차 크게 성장해나갈 첫 스텝, 한양대학교.

「가작」

표지원 (학생)

한 시대에 획을 그으려
양팔 모두 걷어 한껏 머리를 모으니
팔팔한 청춘부터 시작하여
공명정대(公明正大)하신 한양 동문들까지 이르렀는데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두렵겠는가
한 없이 펼쳐질, 이 넘치는 가능성의 무대 위에
성공할 인재들 이곳 한양에 다 모였으니 모두
장성 하리로다!

「가작」

한지연 (직원)

한양대가 개교 80주년이라는 기쁜 소식 들으셨사옵니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까지 한양의 드넓은 세계화는 매서울 지경이라지요
팔도강산 창의력 넘치는 인재가 모두 한양대로 모인다 하더이다
공유한 지식은 널리 나눔으로 사회에 이바지한다니 한양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오
무한한 지식의 내공을 쌓고 싶은 유생들은 당장 한양대에서 꿈을 펼쳐보시오
한양유생이 꿈꾸는 미래는 현실이 되어 세계을 평정한다는 전설도 있다 합니다
성장하는 한양에 실용적인 기술 학문을 더하니 그 위상이 더욱 빛나는 모습이오
장래가 밝고 현명해 한양의 자부심이 될 그대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